시끌벅적 e-스타

2008 상반기 돌아본 동영상 인기

희망찬 출발을 했던 2008년도 숨가쁜 일정을 달려 전반기를 마감했다. 6월이 넘어 7월의 힘찬 시작을 맞은 2008년, 다사다난했던 전반기를 돌아본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08년 상반기 사건사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라 4만 네티즌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지난 6개월을 되돌린 첫 화면은 기름때를 뒤집어 쓴 자원 봉사자들이 장식했다. 지난해 12월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던 태안은 자원 봉사자들의 가쁜 숨결 속에 새해를 시작했었다.

1월 40여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에 이어 2월에는 전국민의 가슴을 까맣게 태워버린 방화가 있었다. 2월10일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마에 한 줌 재로 무너져 내렸다.

3월에도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됐다. 네 모녀가 피살됐다. 유명한 야구 선수 출신의 용의자는 한강에 투신 자살하면서 많은 의문 속에 역사로 남게 됐다. 3월 안양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들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었다. 4월에는 AI의 공포도 전국으로 확산됐다.

중국인들의 성화 봉송 폭력 사태와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연대의 파업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 집회 등 대한민국은 엇갈린 소리가 충돌하면서 다사다난했던 전반기를 보냈다.

하지만 희망찬 뉴스도 있었다.

지난 4월 광주 출신의 이소연씨가 러시아의 소유즈호를 타고 우주를 다녀오면서 한국 첫 우주인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어떤 기도

총알 택시 운전사와 목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목사는 자신이 총알택시 운전사보다 훨씬 칭찬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하나님은 총알택시 운전사를 더 칭찬했다.

그러자 목사가 말했다.

"하나님 제가 총알택시 운전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조용히 말했다.

"너는 늘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이 사람은 늘 기도하게 했느니라."

■현명한 대답

어느 가족이 주말에 야외에 나갔다. 아들이 자동차를 보면서 아빠에게 물었다.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빠는 어떻게 대답을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자동차가 움직인다.'

이 대답은 아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생각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뛰어놀 수 있듯이 자동차도 엔진에 기름이라는 밥을 주게 되면 움직인다.'

자상한 대답인 것 같았지만 뭐가 좀 허전하게 느껴져서 한참을 궁리하고 있자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요?"

그러자 엄마는 잠시도 망설임 없이 한마디로 말을 끝냈다.

"빙글빙글!"

■어떤 아내

지방으로 출장을 간 남자가 예정보다 빨리 집에 돌아왔다. 침실에 들어선 남자는 아내가 알몸으로 낯선 남자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남편을 흘끔 쳐다본 아내는 옆에 있는 사내에게 속삭였다.

"제 말이 맞죠? 저 사람은 멍청해서 우리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구요."

■절약정신

어느 날 남편이 숨을 헐떡이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영문을 모른 부인이 남편을 보고 물었다.

"아니 왜 숨을 헐떡이고 있어요?"

"별거 아니야. 퇴근하는 길에 버스를 안 타고 대신 뒤쫓아 뛰어와서 1천원을 벌었어."

그러자 부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참 어리석군요. 왜 택시를 뒤쫓아 오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4천원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구두쇠

복지 재단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이 그 도시에서 가장 잘나가는 사업가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1년에 수십억원 이상을 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부를 전혀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사회에 자신의 부를 환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텐데요."

사업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 연 수입은 조사하셨는데 제 어머니께서 불치병으로 투병 중이며 엄청난 병원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조사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직원은 얼굴을 붉히고 대답했다.

"아, 아뇨.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형이 월남전에 참전한 상이 군인으로 아내와 자식 여섯 명이 있다는 것도 조사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여동생은 남편 사업실패로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요."

당황한 직원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 사정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업가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게도 땡전 한 푼 안 주는데 왜 생판 모르는 남에게 기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리빙 센스

신장·방광·생식기가 좋아지는 기체조

▲항문 조이기(50회 이상)

엄지 발가락을 붙이고 누운 자세에서 항문을 조였다 풀어주기를 반복한다. 처음에는 50회 정도하고, 횟수를 늘려나간다. 이때 몸은 움직이지 않고 항문 괄약근만 움직인다. 치질·신장질환·요실금 예방에 효과적이다.

▲허리 돌리기(각각 10회 이상)

양손을 옆구리에 대고 점점 크게 원을 그리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9회 정도 부드럽게 돌린다. 이때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허리가 최대한 돌려지도록 한다. 허리를 중심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준다.

▲발목 돌리고 털기(각각 5회 이상)

왼쪽 발목을 시계방향과 반대방향으로 5회씩 돌려준뒤 숨을 들이쉬면서 한쪽 다리를 들고 손을 허리에 얹는다. 숨을 내쉬면서 발을 앞으로 턴다. (같은 요령으로 옆·뒤로도 턴다) 발목, 무릎을 풀어주며, 신장·방광을 강화한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일(음 6월 1일 甲辰)

子	36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맴돌 수도 있으니 자 살펴보라. 48년생 내 것 잃고 송사 당할 수도. 60년생 중인이 나타나서 사건을 가르게 된다. 72년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 84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 행운의 숫자 : 21, 16
丑	37년생 애인과 이성교재가 있을 수도 있다. 49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 61년생 스스로 자파하는 격이니 자신을 살피라. 73년생 가내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형상이 발생. 85년생 전화위복이니 변동으로 길사가 전개된다. 행운의 숫자 : 05, 43
寅	38년생 실물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50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편하게 할 수 있으나 과시는 금물. 62년생 부부사이에 불편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 74년생 신념을 살려가며 매사에 신중함이 있어야. 행운의 숫자 : 17, 27
卯	39년생 확신이 없는 투자는 삼가야 하리라. 51년생 존분이라도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로 나타난다. 63년생 대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75년생 큰 득은 좋은 마무리에 있다. 행운의 숫자 : 12, 28
辰	40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52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수가 있다. 64년생 용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형상이니 스스로 패한다. 76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행운의 숫자 : 11, 31
巳	41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심사숙고하라. 53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65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전으로 연결된다. 77년생 겨우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활동하라. 행운의 숫자 : 09, 33
午	42년생 타에 의한 사언과 손재가 우려 된다. 54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66년생 문서 직업으로 인해서 대고역이 중중해서 심신까지 불안하다. 78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08, 41
未	43년생 친구 친척 간에 호사다마가 있게 되니 조심해야 하리라. 55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라. 67년생 길사에 침체될 우려는 있으나 종래는 안정 된다. 79년생 신사 투자에 손재가 크니 신중하게 숙고하라. 행운의 숫자 : 14, 42
申	44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활성되리라. 56년생 예기치 못한 역습이니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68년생 헛 문서로 눈물이 걱정된다. 80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03, 43
酉	45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57년생 융합할 듯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69년생 증식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 되면서도 어수선하다. 81년생 부부 및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행운의 숫자 : 01, 44
戌	46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을 수도 있다. 58년생 백사가 순조롭다. 70년생 충의 불편사가 발생한다. 82년생 가정과 배인의 불편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행운의 숫자 : 04, 35
亥	47년생 이해있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하라. 59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다. 71년생 비정한 괴로움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83년생 사회활동을 불편하게 할 주변인이 다가 오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0, 38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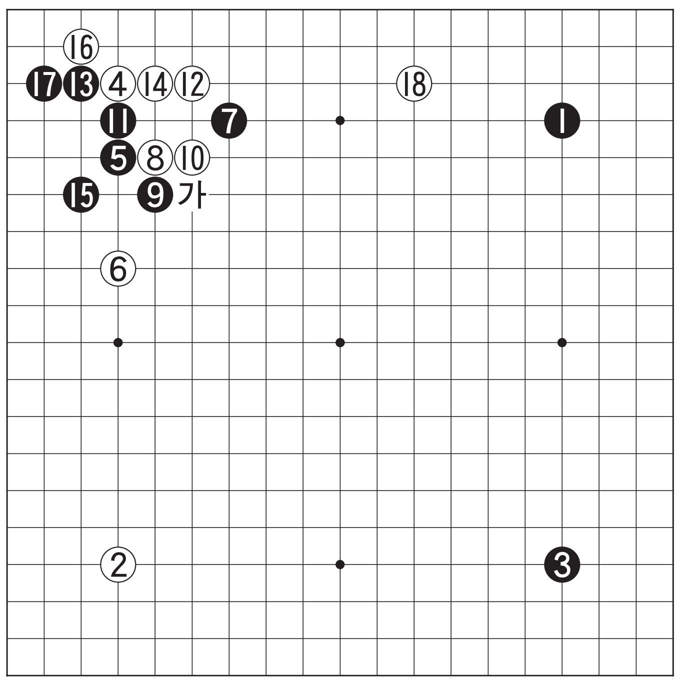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HARTMANN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동병상련의 만남

3회전 2국 1보 (1~18)

白 허우석 5단 (북구청) 黑 이한재 5단 (조선대)



이번에는 3회전의 또 다른 한판으로 조선대학교의 백전노장 이한재 5단과 북구청의 맹장 허우석 5단의 대국을 소개한다.

조선대 경영학과 교수인 이한재 5단은 이 대회 창설 때부터 빠지지 않고 참가해 온 직장대회의 산 증인이자 터줏대감이며, 북구청의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직중인 허우석 5단은 예전 시청팀의 전성기를 열었던 맹장으로 이번에는 북구청팀으로 옷을 갈아입고 출전해 다시 한번 옛 영광을 꿈꾸고 있다.

두대국자는 동병상련의 처지. 각기 호기롭게 출발했으나 이한재 5단은 강자들을 만나 연패를 당하고 있고 허우석 5단 역시 1회전에서 우승후보로 꼽히는 박광주 5단에게 덜미를 잡혀 기세가 한풀 꺾인 상태다. 서로가 이 판을 이겨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다.

백 6부터 유명한 요도정석이 펼쳐지고 있다. '가'로 밀지않고 바로 흑 15로 지킨 것이 구형정석이다. 최근에는 이 수로 거의 '가'로 밀고 있으나 변화가 복잡하다. 이한재 5단은 초반부터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쉬운 길로 가고 있다. 백 18이 호기로운 벌림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 SINAN 엘도라도리조트

바둑소식

박지은 지지옥션배 2연승

박지은 9단이 2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본선19국에서 조대현 9단을 295수 끝에 1집반으로 제치고 대회 2연승을 달렸다.

박지은은 좌변의 대마를 조대현에게 내줘 패색이 짙었지만 끝내기에서 실익을 챙기면서 기적같은 승리를 일궈냈다. 박지은의 이날 승리 시니어팀은 이제 4명의 기사가 남았다.

3일 본선20국에서 박지은은 서봉수 9단과 대결을 펼친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자 10분 30초 3회 덤 6집반으로 진행된다. 상금은 우승 7천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95>

I really let him down.

저는 그분에게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A : I really let him down. I don't know what to do.
B : I suppose you should tell him you're sorry.
A : I know that. I just wish I could fix everything.
B : Yah, me too.

A : 그분에게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B : 내 생각에는 자네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텐데.
A : 그점 알아요. 저는 정말 확실하게 수습을 하고 싶어요.
B : 그래야죠.

* let ~down = 낙심시키다, 기대를 무너뜨리다
* 그 사람의 경우에는 자네가 옳다고 생각하네.
= I suppose that you're right about him.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195>

今日木村さんに會(あ)ってみましたか。

오늘 기무라 씨를 만나 보았습니까

A ：今日木村さんに會(あ)ってみましたか。
B ：ええ、でも，約束(やくそく)の時間(じかん)にだいぶ遲(おく)れてしまいました。
A ：それは失禮(しつれい)なことをしてしまいましたね。
B ：ええ、これから約束の時間よりも早(はや)く着(つ)くつもりです。

A ：오늘 기무라 씨를 만나 보았습니까?
B ：예, 하지만 약속 시간에 많이 늦어버렸습니다.
A ：그거 실례를 하고 말았군요.
B ：예, 앞으로 약속 시간보다도 일찍 도착할 생각입니다.

遲(おく)れる：늦다
失禮(しつれい)：실례
これから：앞으로 이제부터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72>

快要开始了。

곧 시작한다

A: 电影快要开始了。
diànyǐng kuài yào kāishǐ le。

B: 现在几点?
Xiànzài jǐ diǎn?

A: 七点十分。
qī diǎn shí fēn?

B: 快进去吧。
kuài jìnqù ba。

A: 영화 곧 시작하려 해.
B: 지금 몇 시야?
A: 7시 10분.
B: 빨리 들어가자.

电影 [diànyǐng] 영화
快要…了 [kuàiyào…le] 곧(머지않아) ~하다
进去 [jìnqù]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12>

目不識丁(목불식정)

눈 목, 아닐 불, 알 식, 고무래 정

목불식정(目不識丁)은 눈으로 고무래 정(丁)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고무래는 곡식이나 재를 긁어모으거나 펼칠 때 사용하는 '丁' 자 모양의 기구이다. 매일 사용하는 기구가 '丁'자인줄도 모르는 무식함을 비유한다. 속담의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은 명문가문의 귀공자였던 장홍정(張弘靖)의 일화에서 유래한다. 그는 음직(蔭職)으로 벼슬길에 올라 노룡절도사(盧龍節度使)가 되어 유주(幽州, 지금의 북경)에 부임하였다. 그곳은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대장과 사병들은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홍정은 그런 풍토를 알지 못한 채, 군대를 순찰할 때도 교자(轎子)를 탔고, 더욱이 그의 종사관들은 대장의 위세를 믿고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추태를 부렸다. 그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현지의 관리와 군사를 반역자라고 부르고, "지금 천하는 태평한데 너희들은 두 석 무게의 석궁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丁)'자 하나를 아는 것만도 못하다"고 놀려댔다. 게다가 홍정이 군사경비를 착복한 것이 드러나자 군사들은 모반을 일으켜 종사관들을 죽이고 홍정을 포박하였다. 뒤에 국가에서는 홍정의 벼슬을 강등하였다. (舊唐書, 列傳79, 張弘靖傳)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